

단국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인문계열 문제 및 답안 (오전)



전형유형	논술우수자
수험번호	
성명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30점)

- 1) [가]에서 마을 사람들의 정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 하나를 찾은 후, 그 단어에 기초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십시오. (200자 내외) (10점)
- 2)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화자가 지닌 의식을 설명하고, 그것을 근거로 [다]의 주장을 요약하십시오. (400자 내외) (20점)

[가] 땅 위에 살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재곤(在坤)’이라는 이름을 가진 앓은뱅이 사내가 있었습니다. 성한 두 손으로 명석도 절고 광주리도 절었지마는, 그것만으론 제 입 하나도 먹이지를 못해, 질마재 마을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마을을 앉아 돌며 밥을 빌어먹고 살 권리 하나를 특별히 주었습니다.

‘재곤이가 만일에 제 목숨대로 다 살지를 못하게 된다면 우리 마을 인정은 바닥난 것이니, 하늘의 별을 먼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두루 이러하여서, 그의 세 끼니의 밥과 추위를 견딜 옷과 불을 늘 뒤대어 돌보아 주어 오고 있었습니다.

출처: 김윤식 외, 『고등학교 문학』

[나]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말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없이 떠나간다.
…… (후략) ……

출처: 권영민 외, 『고등학교 문학』

[다]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악으로 대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간을 가리켜 호모 리시프로칸, ‘호혜적 인간’이라 부른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특성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행위에 대해 보복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서로 협조하여 전체가 공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인간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다.

호혜적 인간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에게는 협력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보복하려는 성향이 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응징하는 호혜적 인간이 많을수록 생태 환경은 깨끗해지고 사회적 규범도 굳건해질 것이다.

호혜적 인간의 행동은 여러 사례에서 발견된다. 전통적인 노사 관계는 노동자에게 높은 업무를 할당하고 그 할당량에 미달하는 경우 해고 또는 감봉한다. 이와 달리 호모 리시프로칸의 인간 유형은 다른 노사 관계를 제시한다. 기업가가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노동자는 이에 많은 노동으로 보답하는 선물 교환 방식이 그것이다. 호의에는 호의로 보답하는 호혜적 노사 관계가 노동 시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시장의 실패 역시 호혜적 인간이 존재함에 따라 완화된다. 공동 어장인데도 자기만 이익을 보려는 자들의 남획 때문에 자원이 고갈되는 공유지의 비극, 어두운 골목길에 가로등을 세웠

는데 분담금도 내지 않고 이득을 얻으려는 양체의 무임승차 등이 시장 실패의 사례이다. 그러나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공동 어장이 황폐해지는 시장 실패는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응징하려는 호혜적 인간에 의해 극복된다. 호혜적 인간의 존재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출처: 문영진 외, 『고등학교 국어 II』

[문제 2] [가]와 [나]는 사회·문화 현상과 도덕 규칙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 두 관점을 모두 설명하고, [다]를 참고하여 [라]의 주장을 [가]와 [나]의 두 관점에 근거하여 비판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가]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뿐 아니라 다른 사회나 집단의 문화를 접하게 된다. 이때 자신의 문화는 물론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의 수준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우수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절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옳은’ 삶의 길이란 선조들이 사용하였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 삶의 길이다. 전통은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지닌다. 전통은 경험으로 증명될 수 없다. 옳음의 개념은 민속이나 민족 등 그 사회나 공동체 안에 있다. 그것은 그 사회나 공동체를 떠나 그 바깥에 존재할 수 없고, 그것과 독립된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또 시험할 수도 없다. 그 사회나 공동체 안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옳다. 그것은 전통적이고, 자체 속에 조상들의 정령의 권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나 공동체에는 그 사회나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공동으로, 즉 모두가 소유하여야만 그 사회나 공동체가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다. 거짓말과 살인을 금지하는 규칙이 전형적인 예이다. 그러한 규칙은 모든 살아있는 문화권 안에서 지켜지고 있다. 비록, 그 규칙을 적용하는 데 정당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모든 사회와 공동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도덕 규칙을 거부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다.

출처: 박찬구 외,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다] 윤리란 어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표준이나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각 개인 또는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과 규칙을 따르는 문제로 본다. 그러나 문화가 상대적인 것과 윤리가 상대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문화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고, 윤리는 당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느슨한 상관관계는 성립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

출처: 조성민 외,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라] 우리는 식사할 때 손가락을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런데 손가락이 아닌 손가락을 사용하여 식사하는 문화권의 사람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아기가 아니면 손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은 거의 보기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할 때 손가락을 주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도 손가락으로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훨씬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시절에 왼손잡이에게도 오른손을 쓰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밥을 먹을 때나 글씨를 쓸 때는 오른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아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의 많은 도구가 오른손잡이에게 더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왼손잡이만을 위한 물건(왼손잡이용 마우스, 가위 등)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을 이상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출처: 구정화 외,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3] [가], [나]를 근거로 [다]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라]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600자 내외) (40점)

[가] 최근 주5일 근무와 수업제의 확산,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등으로 일이나 공부를 제외한 남은 시간에 봉사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이나 공부에서 벗어나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기분 전환 및 자기 발전, 만족감 등을 얻으려고 하는 시간이나 활동을 여가라고 한다. 여가 활동에는 건강·스포츠 활동, 취미·교양 활동, 사교·오락 활동, 관광·행락 활동 등이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 여가는 일이나 공부 등에서 비롯되는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휴식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취미를 발견하고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

출처: 박윤진 외, 『고등학교 사회』

[나]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 준 동력 혁명이자 기계 혁명이었다. 20세기에 꽃을 피웠던 산업화 시대는 20세기의 후반에 들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식 정보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의 변화에 따라 노동의 의미와 형태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 즉, 산업화 시대에서 노동은 주로 공장에서 이뤄지는 육체적 노동을 의미하였으나 지식 정보 시대에서는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적 자본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출처: 오영수·김진영, 『고등학교 경제』

[다] OECD 주요국 연평균 근로 시간 및 노동 생산성

<표 1> OECD 국가의 2013년 연평균 근로 시간

국가	연평균 근로 시간 (단위: 시간/년)
노르웨이	1,408
뉴질랜드	1,760
스위스	1,585
아일랜드	1,815
일본	1,735
칠레	2,015
캐나다	1,675
프랑스	1,489
핀란드	1,643
한국	2,079
헝가리	1,880
OECD 평균	1,743

<표 2> OECD 국가의 2013년 노동 생산성

국가	노동 생산성 (단위: US\$/시간)
노르웨이	63.8
뉴질랜드	30.4
스위스	44.5
아일랜드	50.6
일본	36.2
칠레	19.9
캐나다	43.0
프랑스	50.9
핀란드	42.6
한국	29.9
헝가리	22.8
OECD 평균	40.5

출처: 한국생산성본부, 『노동 생산성 국제 비교』

[라] 여자 마을버스 기사 (노래) 서울살이 삼십 년, 버스 안내양으로 시작한 서울살이.

구박, 설움, 열기도 받았지만

내가 오라이 하면 출발하는 버스가 좋았지.

남편이 죽고 시작한 마을버스, 매일 매일 순대 속처럼 미어터져.

비 오는 날이면 좁은 비탈길 오르내리는 일 두렵지만

열두 시간씩 운전대를 붙잡고
술 취한 손님의 샷대질에도
운전대를 꼭 붙들어.
운전대는 내 밥줄, 내 삶.

직장인 (노래) 서울살이 이 년, 바쁜 게 좋아 시작한 직장 생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사는 기분은 즐거웠지만
아파도 약 한 봉지 사 주는 이 없고
무슨 일 생겨도 연락할 사람 하나 없어.
비 오는 날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회사 가기 싫어.
'어금니 꼭 깨물고 버티자.'속으로 외치지.
다음 달 카드 값, 장난이 아니야!

솔롱고 (노래) 서울살이 오 년, 다섯 번째 공장.
받은 월급보다 더 쌓인 밀린 월급.
비 오는 날이면 가족 생각에 온 맘이 저리고
비 오는 날이면 온몸이 쭈셔 와요.
친구는 아파서 누워 있고 병원 갈 돈 없어
빗물 대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속이는 사람들, 피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는 떠나지 못해요.
..... (후략)

출처: 박종호 외, 『고등학교 문학』